2026년 11월 말레이시아 관광시장 동향

'26. 11. / 쿠알라룸푸르지사

○ 브루나이, 영국 WTM 박람회 최초 참가

- 브루나이는 관광개발국 주도로 영국 런던에서 열린 월드 트래블 마켓(WTM)에 2026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최초로 참가함
- 2025년 브루나이에는 영국발 관광객이 약 9천명 방문했는데, 이번 참가로 브루나이는 영국 및 유럽 시장 전반에서 입지 강화를 노림

○ 11월~27년 3월, 페낭-바르샤바 직항 전세기 운항

- 레인보우 투어스 여행사는 2026년 1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293석 주1회 규모로 폴란드 바르샤바와 말레이시아 페낭을 연결하는 계절성 직항 전세기를 운항함
- 말레이시아관광청은 이번 운항이 말레이시아의 문화유산, 열대 섬, 자연 관광명소 및 미식에 대한 폴란드 여행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전세기 운항으로 인해 페낭의 미식 문화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지타운의 위상을 활용해 페낭 관광산업을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폴란드 관광객은 40,52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5년 같은 기간의 37,432명보다 8.3% 증가한 수치

○ 말레이시아, 이슬람 관광 컨퍼런스 통해 무슬림 관광 진흥 의지 표명

- 11월 첫째주 말레이시아 파항주 콴탄에서 열린 제5회 세계 이슬람 관광 콘퍼런스(WITC 2026) 개막식에서 관광예술문화부 사무차관은 이슬람 관광센터(ITC)를 통해 무슬림 친화 관광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 발표에서 그는 [세계 이슬람 경제 현황 보고서 2025/26]에서 무슬림 관광 지출이 2024년 2,490억 달러(약 1조 링깃)에서 2029년에는 4,240억 달러(1조 7,100억 링깃)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이는 세계 이슬람 경제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 부문이라고 설명
- 이러한 무슬림 관광객들은 할랄 음식, 적절한 기도 시설, 무슬림 친화적인 숙박시설이 여전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아울러 자연, 문화, 쇼핑, 웰니스, 가족 활동 및 진정성 있는 현지 체험도 추구하는 성향으로 말레이시아는 이미 구축된 할랄 생

태계와 다양한 관광 상품, 국제 관광객을 응대해 온 경험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

○ 관광부장관, 서아시아 위기가 말레이시아 MICE에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발표

- 관광예술문화부 장관은 하원 질의 응답에서 말레이시아의 MICE 산업 성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총 464건의 MICE 행사가 개최되었고,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51억 1,000만 링깃(약 1조 6,863억원)으로 추산
- 특히 말레이시아 컨벤션뷰로(MyCEB) 주도로 서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로 개최가 어려워진 MICE 행사 12건을 말레이시아로 유치하였으며, 그 결과 2026~2027년에 총 1억 4,314만 링깃(약 47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개최 시기별로는 2026년에 4건에 경제적 효과는 5,827만 링깃(약 192억원), 2027년 8건에 경제 효과 8,487만 링깃(약 280억원)
- 2027년에는 MICE 행사 44건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참가자는 약 6만 9,500명, 목표 경제적 파급효과는 10억 3,000만 링깃(약 3,399억원)

○ 관광예술문화부, 무면허 운영 관련 500개 이상의 관광업체 모니터링 중

-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는 무면허 운영 등으로 조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이름을 공개해 대중에게 알리는 감시 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500개 이상을 모니터링중이며 이 중 수십 개 업체가 현재 성지순례 패키지 등 국내외 여행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으로 밝혀짐
- 주된 위반 사항은 업체 및 가이드의 면허 관련이었고, 그 외에는 환불 규정 위반 등이었으며, 이들 업체들은 경고 후 위반이 지속되면 단속 조치를 받게 됨
- 올해 10월까지 2개 기업의 면허가 정지되었고, 3개 기업 면허는 취소되었으며, 유효한 면허 없이 영업한 12개 사업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짐
- 또한 관광예술문화부는 단속을 위해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입국 지점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고, 최근에도 면허 없이 관광 패키지와 성지순례 패키지를 판매하는 업체 등 다양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힘

○ 라이온스 포럼 참석을 위한 부산-페낭 전세기 11월 한정 운영

- 제63회 동양 및 동남아시아 라이온스 포럼 참석자들을 태운 에어부산 전세기가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해 11월 12일 오후 11:30 페낭국제공항에 도착

- 이는 부산과 페낭을 잇는 최초의 직항 전세기로서, 11월 왕복 2회에 한정됨
- 이 외에도 페낭은 올해 말 다양한 전세기 운항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1월 5일 바르샤바발 겨울철 전세기가 도착한 바 있고, 12월 30일에는 오사카발 단발성 레저 전세기 운항 예정
- 페낭주는 아직은 전세기 운항이 시장 수요를 시험하는 기회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한국의 다른 도시에서 페낭으로 직항편을 운항하려는 항공사에 페낭이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

○ AI 장비 기업 HONOR, 말레이시아관광청과 MOU 체결

- 휴대전화, 태블릿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 HONOR는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2026~2027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청과의 파트너십을 갱신함
- 이를 통해 워크숍, 사진 공모전, 미술 전시회 및 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자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유산, 독특한 현지 문화 체험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국제 관객들과 공유하도록 장려할 계획
- HONOR 말레이시아 사장은 이번 협력의 지속을 통해 더 많은 말레이시아 국민이 자국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세계와 공유하도록 장려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관광청 사무총장은 HONOR와 파트너십을 갱신함으로써, 최첨단 사진 기술과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자연적 아름다움과 생동감 넘치는 문화, 풍부한 유산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됐다는 소감을 밝힘

○ 쿠알라룸푸르 부킷 빈탕 지역 조명 장식 개선에 200만 링깃 예산 배정

- 말레이시아 정부는 내년 부킷 빈탕 일대의 장식 조명을 개선하기 위해 200만 링깃(약 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 이 프로젝트를 통해 쿠알라룸푸르의 야간 관광 목적지로서의 매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쿠알라룸푸르시청은 조명 개선 사업을 12월 중순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공사에는 출입구 구조물에 설치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조명, 20개 구간의 장식용 가로등, 새롭게 디자인된 장식용 가로등 기둥 40개, 점멸 조명 1,000개가 포함됨
- 또한 부킷 빈탕 보행자 전용 통로를 따라 상호작용형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고출력 방수 프로젝터 10대도 설치될 예정이며, 관광 안내 표지판에는 말레이시아의 4대 주요 축제 기념행사를 주제로 한 특별 문양 80개도 추가될 예정

○ **에어보르네오, 쿠칭-자카르타 직항 운항 개시**

- 사라왁주 소유 항공사인 에어보르네오가 쿠칭과 자카르타를 잇는 직항편 운항을 시작하면서 사라왁주와 인도네시아 수도 사이에 새로운 항공 연결망을 구축(주3회)
-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방문객들은 사라왁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역과 열대우림, 문화 축제 등을 더욱 쉽게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사라왁 주민들은 자카르타의 음식, 패션, 창조산업 및 라이프스타일 관련 명소로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등 양방향 관광 활성화가 기대됨
- 이번 노선은 전문 치료, 2차 소견, 진단 검사 또는 계획된 의료 시술을 위해 사라왁을 방문하는 의료관광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에어보르네오는 환승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령 승객과 의료 치료 후 회복 중인 승객들의 이동이 한층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힘
- 운임은 쿠칭 출발 기준 이코노미 클래스가 399링깃(약 13만 2,000원), 비즈니스 클래스가 888링깃(약 29만 3,000원)부터 시작하며, 자카르타 출발 운임은 각각 175만 루피아(402링깃, 약 13만 3,000원)와 388만 루피아(892링깃, 약 29만 4,000원)부터 시작

○ **관광청, 선불카드 업자와 협력해 현금 없이 결제 가능하도록 인프라 개선**

- 말레이시아관광청(Tourism Malaysia)은 2026~2027년 방문의해 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현금 없이도 각종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사업자인 머천트레이드(Merchantrade)와 협업한다고 밝힘
- 이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외국인 방문객들은 현금을 환전하거나 결제 금액을 계산하고 거스름돈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자금을 링깃으로 환전해 현금 없이 결제할 수 있는데, 비자(Visa) 결제망을 기반으로 하는 이 카드는 호텔, 쇼핑몰 및 시장과 노점 등을 포함한 현지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두잇나우 QR(DuitNow QR)과의 연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됨
- 머천트레이드는 전국에 9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유명 쇼핑몰에도 지점이 있어 관광객들은 해당 지점에서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 가능하고, 초기 불량 1만 장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반응에 따라 언제든지 수량을 늘릴 수 있다고 밝힘
- 이를 통해 관광객의 소비가 현지 가맹점으로 직접 유입되도록 유도해 지속 가능

한 관광 발전을 지원하고, 2027년 이후에도 말레이시아 관광 경제의 현금 없는 결제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카드와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런던, 두바이, 서울, 오사카, 시드니, 제다 등 주요 관광 시장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관광청의 해외 사무소 29곳을 통해서도 홍보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인도인 무비자 관광 입국 12.31.부로 종료

- 말레이시아는 12월 31일부로 인도 국적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내무부가 의회 답변을 통해 밝히면서, 이번 조치가 입국 전 심사를 강화하고 입국 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 무비자 입국 조치는 당초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인도와 중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2년 더 연장되어 자격을 갖춘 인도 국적 방문객은 이민 당국의 입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광, 비즈니스 및 사회적 방문을 목적으로 최대 30일간 비자 없이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수 있었음
-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무비자 조치가 시행된 첫해에 인도인 방문객 916,821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보다 223% 증가한 수치

○ 에미레이트항공, 두바이-쿠알라룸푸르 노선에 A380추가 투입 예정

- 1996년 10월 주3회 운항으로 말레이시아이 진출한 에미레이트항공은 현재 매일 3회 운항을 할 정도로 시장이 커졌고,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두바이-쿠알라룸푸르 노선의 매일 3회 운항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12월 1일부터 투입되는 항공기 교체를 통해 좌석수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
- 이는 겨울 여행 시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투입중인 B777-300ER 항공기를 A380으로 바꾸어 운항하는 것임

○ 사라왁주, 에어보르네오 활용한 국제관광 및 컨벤션 목적지 변모 의지 밝혀

- 사라왁주 총리는 컨벤션 센터 개관식 및 테마파크 출범식에서 사라왁주가 사라왁주가 국제회의, 전시회 및 관광객을 유치할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기존 항공사에 의존해 온 탓에 해당 분야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자체 항공사인 에어보르네오를 활용해 이를 극복할 의지를 밝힘
- 주총리는 두바이는 항공 연결성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에미리트를 세계적인 주요 관광 목적지로 발전시킨 사례라며, 에어보르네오가 두바이와 같은 국제 항

공·관광 허브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자체적인 사업 모델을 채택했으며 에어보르네오의 사업 모델이 경쟁력 있는 운임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라왁주의 보다 광범위한 경제 발전 목표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고 함

○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B787-10 드림라이너 추가 도입

- 말레이시아항공은 확정 주문 10대와 추가 6대의 옵션을 포함한 계약을 통해 기존 에어버스 A350-900 항공기 7대를 보잉 B787-10 드림라이너로 교체할 예정
- 이번 주문으로 말레이시아항공은 B787-10 드림라이너를 운항하는 최초의 말레이시아 항공사가 되며, 해당 항공기들은 향후 노선망 계획과 운항 요건에 따라 런던, 파리, 시드니, 멜버른, 도쿄, 오사카 및 서울을 비롯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제 목적지에 투입될 예정

○ 관광업계 대상으로 한 정부 관계자 사칭 허위 주문 사기 적발

- 말레이시아 여행업협회(MATTA)가 정부 부처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들이 여행사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한 것에 이어, 관광예술문화부 역시 한 여행업체가 정부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들로부터 예약 요청을 받을 사례가 나왔다고 발표
- 관광예술문화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여행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 일반 국민에게 부처 및 산하 기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예약, 업무 지시 또는 구매주문서를 수락하기 전에 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

[자료 출처 : 현지 주요 언론 종합]

○ 브루나이, 영국 WTM 박람회 최초 참가

https://www.thestar.com.my/aseanplus/aseanplus-news/2026/11/06/brunei-promotes-tourism-to-international-travel-industry

○ 11월~3일, 페낭-바르샤바 직항 전세기 운항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11/1574572/penang-welcomes-inaugural-winter-charter-flight-poland

○ 말레이시아, 이슬람 관광 컨퍼런스 통해 무슬림 관광 진흥 의지 표명

https://www.thestar.com.my/lifestyle/travel/2026/11/11/malaysia-is-exploring-opportunities-to-boost-its-muslim-friendly-tourism

○ 관광부장관, 서아시아 위기가 말레이시아 MICE에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발표

https://theedgemalaysia.com/node/824653

○ 관광예술문화부, 무면허 운영 관련 500개 이상의 관광업체 모니터링 중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11/1577243/over-500-tourism-operators-under-scrutiny-dozens-offering-umrah

○ 라이온스 포럼 참석을 위한 부산-페낭 전세기 11월 한정 운영

https://penangtoday.my/news/10417/first-busan-charter-brings-192-lions-forum-delegates-to-penang/#google_vignette

○ 말레이시아관광청, AI 장비 기업 HONOR MOU 체결

https://www.thestar.com.my/metro/metro-news/2026/11/13/honor-partners-with-finas-tourism-malaysia-to-support-local-talents

○ 쿠알라룸푸르 부킷 빈탕 지역 조명 장식 개선에 200만 링깃 예산 배정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11/1579679/rm2mil-upgrade-light-bukit-bintang

○ 에어보르네오, 쿠칭-자카르타 직항 운항 개시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6/11/14/airborneo-takes-off-for-jakarta-kuching-direct-flights-from-rm399/243201

○ 관광청, 선불카드 업자와 협력해 현금 없이 결제 가능하도록 인프라 개선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11/1581369/merchantrade-tourism-malaysia-push-cashless-tourism

○ 말레이시아, 인도인 무비자 관광 입국 12.31.부로 종료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11/1581781/no-more-visa-free-access-malaysia-indian-citizens-dec-31

○ 에미레이트항공, 두바이-쿠알라룸푸르 노선에 A380추가 투입 예정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11/1581765/emirates-add-second-a380-kl-carries-12mil-passengers-malaysia

○ 사라왁주, 에어보르네오 활용한 국제관광 및 컨벤션 목적지 변모 의지 밝혀

https://theedgemalaysia.com/node/826512

○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B787-10 드림라이너 추가 도입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11/1585926/mag-orders-10-boeing-b787-10-dreamliners-replace-airbus-a350#google_vignette

○ 관광업계 대상으로 한 정부 관계자 사칭 허위 주문 사기 적발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6/11/24/tourism-ministry-warns-travel-firms-of-scammers-posing-as-government-officers-with-fake-purchase-orders/244528